

11/8(월) 욥기 묵상 16

욥기 9:1-2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친구인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첫번째 대답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빌닷의 말을 수긍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빌닷과는 달리 욥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치시는지를 모르겠다고 한탄하게 됩니다.

욥의 고백

욥은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들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2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에 비해 우리 인생은 죄인이며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가 아무리 변론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 마디 말에 한 마디도 변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3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둘째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시다(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마음의 선함과 악함을 다 아시고 그에 따라 상과 벌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산과 온 땅 그리고 하늘의 해와 별들 또 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5-8). 하나님은 그의 힘으로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땅을 움직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5-6). 또, 그가 원하신다면 해를 명령해서 뜨지 못하게도 하시고 별들을 가두시며 또 하늘과 바다 물결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7-8).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10-11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고백은 이미 친구인 엘리바스가 했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욥 5:9,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처럼 욥은 친구들의 말에 수긍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이 보입니다.

욥의 좌절

하지만 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에게 힘과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좌절스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욥은 자신에게 억울한 진노가 내려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12-14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여기서 ‘라합을 돕는 자들’이란 고대 근동 신화에서 창조 신(들)의 가장 강한 라이벌로 간주되었던 ‘라합’과 그와 함께 하는 ‘악령’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욥이 좌절했던 것은 자신의 어떠한 정당한 소송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과 논리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이 이같은 생각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약 그를 돌보셨다면 자신이 이 큰

고난을 당할 리라 없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죽게 한 폭풍을 기억하고 또 자신도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숨쉬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다고 호소합니다(17-18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처럼 욥은 처음에는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고통이 자신에게 까닭없이 임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 것이라고 못박아 말한 것입니다. 이는 친구들의 변론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이었습니다. 욥이 볼 때 자신은 의롭고 온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막론하고 모두를 멸망시키시는 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탄식과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라기 보다는 욥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질문은 사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10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유지한 채 그는 그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갈등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갈등했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고 하박국 선지자이며 요나 선지자, 그리고 세레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 11:2-3, “요한인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에 대해서 질문과 회의를 품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고민한 끝에 궁극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며 주의 응답을 얻기 위해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미국을 위한 기도:**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코비드 19로 인해 현장에서 계속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밀포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지(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IRIS(난민사역) 을 위해서 중보합니다.